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와 양행자 국회의원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 시민들에 의해 참배가 가로막히자 난처해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스

“내란범 오지 말라” 5·18묘역 찾은 장동혁, 5초 묵념 반쪽 참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자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5초 묵념 반쪽 참배’에 그쳤다.

장 대표는 6일 오후 1시39분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지도부와 함께 도착했다. 그러나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던 시민단체, 대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민주묘지에 들어서지 못했다. 시민단체 등은 ‘5·18 정신 훼손하는 장동혁은 물러가라’ ‘오월영령 능욕하는 내란공범 장동혁은 광주를 떠나라’ 등의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장 대표를 막아섰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5분 만인 오후 1시44분께 가까스로 민주묘문을 넘었다. 방명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 대표와 지도부가 자신들을

오후 1시39분 민주묘문 도착, 시민단체와 대치 몸싸움 뚫고 10분 만에 추념탑 도착... ‘5초 묵념’ 광주시민 “내란 동조 반성 없는 국민의힘 규탄”

쫓아나선 시민들과 또다시 대치하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의 문부터 공식 헌화·분향 장소인 추념탑 앞까지는 161m, 통상 걸어서 2분 정도 걸리지만, 장 대표와 지도부는 인파를 헤치면서 전진해 5분여 만에 추념탑 앞에 도착했다.

장 대표의 추념탑 도착 직전에는 한 시민이 장 대표의 이름으로 바치는 화환을 부수려고 시도하다 묘지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오후1시49분 가까스로 제단에 도착했지만 반발은 더욱 격

해졌다. 참배가 가로막히자 장 대표는 옆에 선 양행자 국회의원과 눈을 마주치며 난처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결국 장 대표와 지도부는 더이상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파에 둘러싸인 제단 왼쪽에서 서서 1시50분21초부터 5초 동안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헌화·분향은 생략했다. 당초 이날 장 대표는 윤상원·박관현 열사 묘역을 찾으려 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장 대표가 묵념을 마친 뒤 떠나는 도중에도 당직자들과 시민들 사이 몸싸움은 그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지은 채 이동, 오후 1시55분께 지도부가 타고 온 버스에 가까스로 올라탔다.

장 대표의 참배 시도에 앞서서는 광주 전남대학생진보연대와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장 대표는 국민의힘 임성 전 판사로 근무하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특혜를 준 인물이다. 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면회해 나서는 등 내란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내란에 동조하고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민주묘지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력이 5·18정신을 모욕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부

6·3지방선거 물밑경쟁 ‘치열’ “과열·혼탁” “민심 왜곡” 우려

‘노컷오프’ 기조에 민주당 후보만 최대 13명 난립 후보들 축제·행사 우르르... 불법 현수막까지 ‘몸살’ 사전선거운동, 불법당원모집 의혹도... 고소·고발로 “무리할 수밖에” “공약은 뒷전, 당원 모집만 혈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각 선거구에서 예비후보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해지며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자칫 혼탁한 선거 운동으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3선거 각 선거구마다 출마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지지세가 강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과거 여느 선거보다도 난립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 선거구마다 민주당 주지만 최소 3명에서 최대 12~13명에 달한다. 각급 지방의원 선거 역시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전국 선거에 거대 집권여당 효과도 있겠지만, 민주당 공천 물이 이른바 ‘노컷오프’로 윤곽을 드러낸 영향도 크다.

이러한 물이 확정된다면 기존 지역 구 국회의원의 영향력보다도 권리당원 지지 확보가 공천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만큼 경선 참여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출마를 신중히 저울질하던 인사들도 속속 선거전에 뛰어들며 열기는 이미 뜨겁다.

마을 단위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가 많았던 지난달부터는 서로 경쟁하는 민주당 후보 6~7명이 저마다 이름표를 단 채 주민들에게 인사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냐고 일일이 묻는 후보도 있었고, 현직인 후보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다가 행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일각선 ‘동네 축제가 주민은 뒷전이고 선거판이 됐다’며 뼈 있는 일침도 나왔다.

특히 후보가 자신의 명함을 다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현행 선거법 저촉 소지가 다분하다.

경선 승패를 좌우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은 불법 당원 모집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전남에서는 ‘명부 상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명이 등록돼 있다’ ‘사무실 주소로 당원 등록이 돼 있다’ 등 유령당원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주민총회 개최 장소 주변 곳곳에는 각 후보들의 인사말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엄연한 현행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단속·철거는 뒤늦게 이뤄졌다.

퇴직공무원 출신 한 후보는 지난 추석을 전후로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명절 인사 또는 출마 표명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가, 되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에 부담을 준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현직 구청장 3선 반대 메시지 대량 살포, 현직 겨냥 불법현수막 게시, 군정 비판 문자메시지 일괄 발송 등 주체·근거 없는 마구잡이 비방도 잇따랐다. 급기야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선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벌써부터 조기 과열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당원 불법모집, 음해·흑색선전 등 선거전이 불법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후보들은 확보할 권리당원 수나 정치적 유불리 등을 두고 “양보하기로 했다”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 등 서로 설왕설래하며 합종연횡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읍촌의 각종 정치적 거래가 싹을 위힘도 배제할 수 없다.(2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양수산부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